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타당도 검증¹⁾

이 석 재²⁾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에서는 13가지 자기제시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자기제시 책략척도(Lee, Quigley, Nesler, & Tedeschi, 1995)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그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1)자기제시 책략척도가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고, (2)자기제시 책략이 이원구조(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를 가지며, (3)남자는 여자보다 자기주장적 책략을 더 자주 사용하였음을 보였다. 논의에서는 개인차 변인으로서 자기제시 경향이 자기본위적 편향을 조정하는 역할과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개인주의-집합주의의 문화적 속성이 자기제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본 척도의 예언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과제로 제안하였다.

대인관계에서 행위자는 상대방이 행위자 자신에 대해 갖는 인상을 관리하고자 한다(Goffman, 1959). 행위자의 인상관리 노력은 다양한 자기제시적 행동(self-presentational behavior)으로 표출된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이 검사를 통하여 이러한 자기제시 경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예, Crowne & Marlowe, 1964; 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Lee, Quigley, Nesler, & Tedeschi, 1995; Snyder, 1974).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자기제시 경향이 개인의 특정한 사회적 행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예, Berglas & Jones, 1978; Cialdini & Richardson, 1980; Jones & Pittman,

1982). 다음으로 일부 사회 심리학자들은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기존의 주요 실험결과들을 자기제시이론으로 재해석하고 있다(예, Baumeister, 1982; Tedeschi, 1981). 따라서 자기제시 경향을 개인차 변인으로 다룰 때, 자기제시이론에 따른 재해석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성격을 측정하는 데 있어 자기제시 경향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있다. 예를 들어, 자기보고식의 다면적 인성검사의 경우, K척도는 자아의 호의적인 측면을 보고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다(Butcher et al, 1989). 그러나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가 갖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

1) 저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번역 과정에서 도움을 준 고재홍 교수와 자료의 수집에 도움을 준 이은경, 김태준, 위광희, 최명구, 이현남 선생 등에게 감사드린다. 본 연구의 초고에 좋은 의견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2) 현재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강사임.

의 주된 관심은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하는 선행연구들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하는 검사로는 사회적 호감도척도(Crowne & Marlowe, 1964), 자의식척도(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자기검색척도(Snyder, 1974)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호의적 자기제시척도(Roth, Snyder, & Pace, 1986)가 개발되었다. 이 척도들은 모두 지필검사(paper-and-pencil test)이다. 이들 척도는 자기제시 행동의 동기나 경향을 측정한 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자기제시 전략을 측정한 것은 아니다. Lee 등(1995)은 이들 척도가 가지고 있는 개념조작과 방법론적인 문제를 지적하였다. Paulhus(1984)는 사회적 호감을 측정하는 척도들을 자료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호감도척도가 자기기만(self-deception)과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 두 요인은 상호 독립적이다. 따라서 자기기만은 자기제시 경향과는 무관하였다. 다른 연구들도 사회적 호감도척도가 전술한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Edward & Walsh, 1964; Wiggins, 1964).

자의식척도는 공적 자기정체성(public identities)과 사적 자기정체성(private identities)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을 측정하는 것이다. Carver와 Scheier(1985; Scheier, 1980)는 사적 자의식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공적 자의식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 비해 자기제시행동을 보이려는 동기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 척도는 자기제시경향을 측정하지만 개별적인 자기제시 전략을 측정하지 않았다. 자기검색척도의 구조적 요인을 밝히려는 요인분석 연구들은 척하는 능력(acting ability)이 그 척도의 중요한 구성요인 가운데 하나임을 밝혔다(Briggs, Cheek, & Buss, 1980; Lennox & Wolfe, 1984). 이러한 능력은 무대위의 연극배우와 같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특정인물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기제시행동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식적인 행동도 포함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제시행동 그 자체가 진실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기검색척도가 척하는 행동만을 측정한다면 이는 자기제시행동을 적절히 측정한다고 볼 수 없다. Briggs 등(1980)은 자기감지척도가 M. Snyder에 의해 개념적으로 제안된 5개의 하위 구조로 구성되지 않고, 요인분석결과 3가지 요인(척하는 능력/행동, 외향성, 및 타인 지향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자기검색척도의 사용시 전체 점수를 사용하기보다 앞서 3개의 요인에 대한 개별척도 점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개발된 호의적 자기제시척도는 행위자가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려는 경향을 측정한다(Roth, Snyder, & Pace, 1986; Roth, Harris, & Snyder, 1988). 그러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자기정체성을 드러내거나(Jellison & Gentry, 1978), 자기를 비평하고(Powers & Zuroff, 1988), 자기의 취약점이나 의존성을 들어내면서 타인의 도움을 간청한다(Jones & Pittman, 1982). 그러므로 호의적인 자기제시는 자기제시 개념의 한 측면만을 대표하고 있다(Cook & Campbell의 construct underrepresentation 개념 참고, 1979, p.64). 이 척도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는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행동을 진술하거나(예, “나는 곤란에서 벗어나려고 거짓말도 한다.”) 혹은 가치를 진술하였다(예, “돈은 나에게 중요한 동기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빈도를 나타내는 “항상”, “언제나”, “가끔,” 등의 단어가 척도를 구성하는 행동진술문에 불규칙하게 사용되었다. 따라서, 호의적 자기제시척도는 자기제시 경향을 조작화하는 데 있어 개념적 및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Lee 등(1995)의 연구

Tedeschi와 Lindskold(1976; Tedeschi & Melberg, 1984)는 자기제시행동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나는 전략적-전술적 차원(tactical-strategic dimension)이고, 다른 하나는 방어적-자기주장적 차원(defensive-assertive dimension)이다. 전략적 자기제시행동은 행위

자가 단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동이고, 전술적 자기제시행동은 장기적인 자기정체성을 이룰 목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다. 후자의 경우는 Baumeister(1982)가 주장하는 자기구성(self-construction)의 개념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전략적 자기제시행동을 다룬다. 방어적 자기제시전략(이하 “방어적 전략”)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정체성이 손상 당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때, 자기정체성을 보호하려는 심리과정 속에서 취해지는 자기제시행위이다. 자기주장적 자기제시전략(이하 “자기주장적 전략”)은 특정한 자기정체성을 만들어 내려는 자기제시행위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원하는 자기정체성에 따라 행위자의 자기 주장적 전략은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전략에는 서로 다른 심리과정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가지 자기제시적 전략을 사용하는 동기는 어떤 행위자가 대상인물에게 사회적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Tedeschi, 1981).

Lee 등(1995)은 Tedeschi와 Lindskold(1976; Tedeschi & Melberg, 1984)가 제안하고 있는 자기제시전략의 분류표(taxonomy)와 인상관리를 다루는 문헌(예: Schlenker, 1980; Jones & Pittman, 1982; Tedeschi, 1981)에서 소개하고 있는 자기제시 전략을 포함하여 그림1과 같이 자기제시 전략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Lee 등, 1995) 개별적인 자기제시 전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각 척도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연구1에서는 13개의 전략을 측정하는 9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기제시 전략척도를 개발하였다. 문항선정과정을 통하여 12개의 전략을 측정하는 63개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후광노출전략은 낮은 내적 일치도 때문에 제외되었다. 연구2와 3의 결과는 자기제시 전략척도가 신뢰롭고 타당도가 있음을 보였다. 약 3주간의 간격으로 실시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높고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였다(척도의 총점 $r=.89$, 방어적 전략척도 $r=.88$, 및 자기주장적 전략척도 $r=.87$, 모두 $p<.001$). 타당도는 자기제시 전략척도와 다른 척도간의 상관분석으로 검증되

었다. 방어적 전략척도는 사회적 불안척도(Fenigstein 등, 1975)와 내외통제척도(Rotter, 1966)와 각각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자기주장적 전략척도는 이들 척도와 상관이 없었다. 자기제시 전략척도는 자기감지척도(Snyder, 1974)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그 상관의 정도는 비교적 낮았다.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성별로 자기제시 전략을 사용하는 정도를 일원 변량분석하였다. 그 결과 방어적인 전략의 경우 성별의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주장적 전략의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이들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확인적 요인분석은 자기제시 전략이 일차원적인 구조보다는 그림1에 제시된 모델과 같이 두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위계적구조모델을 지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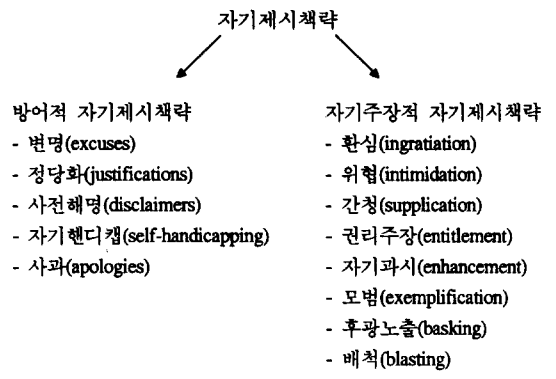


그림1. 자기제시전략의 이요인 모델

본 연구의 목적

Hofstede(1980)는 미국과 한국이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에서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개인주의적이고, 한국은 미국보다 집합주의적이다. 개인주의적인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개별성이 강조되는데 비해, 집합주의적 문화권에서는 공동체적 사고와 상호 의존성이 강조된다. 자신이 속하고 있는 문화권에 따라, 개인이 자기를 서술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의함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한 예로, Rhee 등(1995)은 한국 대학생과 미국의 유럽계와 아시아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한 질문에 대해 연이어 20개의 “나는...”으로 시작되는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20가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자신을 서술한 내용이 추상적-구체적과 자율적-사회적(또는 독립적-상호의존적)인 두 차원상으로 범주화되었다. 한국인은 유럽계 미국인보다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특질(예, 선호, 열망, 활동)을 더 자주 사용하여 자신을 서술하였다. 즉,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상호 의존성을 가진 특질을 사용하여 자신을 서술하는 경향이 현저하였다. 미국인은 한국인에 비해 추상적이고 자율적인 특질(예, 친절, 우정 등 순수한 특질이나 정서상태)을 이용하여 자신을 서술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이 어느 문화권에 속하는가에 따라 자신을 묘사함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³⁾

서양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문화권과는 달리 집단 또는 사회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한국과 같은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적 자기” 보다는 “집단적 자기”가 중요시될 것이다(Triandis, 1989). 대인관계에서 어떤 행위자가 사용하는 자기제시 전략은 그 행위자의 정체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기제시전략의 개념적 기본구조 또는 차원이 상이한가? 문화권에 따라 자기제시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 성별차이가 있는가? 자기제시 전략을 사용하는 동기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자기제시적 행위를 비교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본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논의한 개인주의-집합주의 차원에서 미국과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한국에서

(1)Lee 등(1995)이 제작한 자기제시 전략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하고, (2)자기제시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고, 끝으로 (3)자기제시전략의 기본구조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1에서는 영문판 자기제시 전략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연구2에서는 다른 표집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후, 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자기제시행동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법을 사용하여 자기제시의 구조에 관한 두 경쟁모델을 검증하였다. 단일모델은 자기제시가 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요인모델은 자기제시가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연구 1

연구1의 주된 목적은 Lee 등(1995)이 제작한 자기제시 전략척도의 구성타당도를 다른 문화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Roth와 동료연구자들(Roth, Harris, & Snyder, 1988)은 호의적 자기제시척도가 자기검색척도(Snyder, 1974)와 사회적 호감도척도(Crowne & Marlowe, 1964)와 자기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Lee 등(1995)은 자기제시 전략척도가 자기검색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지만 사회적 호감도척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Lee 등(1995)은 자기제시 전략척도가 사회적 호감도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인 것은 자기제시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호의적 자기제시척도가 사회적 호감도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호의적 자기제시의 동기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승인을 얻는데 있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이들 두 자기제시척도가 사회적 호감도척도와 상이한 상관을 보인 결과로 볼 때, 자기제시 전략척도는 호의적 자기제시 전략척도가 측정하는 구성

3) Rhee 등(1995)은 한국인이 유럽계 미국인에 비해 사회적 정체성(social identity)을 자기서술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언하였다. 연구결과는 이 예언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정체성을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통제할 경우에는 사회적 정체성을 자기서술과 관련시키는 경향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앞서의 예언이 지지되지 못한 결과는 사회적 정체성에서 인종이나 국적에 관한 서술을 배제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cf. “We expected social identities(e.g., student and sister, excluding ethnicity and nationality) to be most common among Koreans and least common among Euro-Americans, but the reverse occurred,…” p.147).

개념(construct)과는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한다. 본 연구는 Lee 등(1995)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자기제시 척략척도가 자기검색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갖지만 사회적 호감도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Lee 등(1995)의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된 예언을 반복하였다. 즉, 방어적 책략은 사회적 불안과 내외통제 특성과 자기 정적 상관을 가질 것으로 예언하였다. Schlenker와 Leary(1982, 1985)는 방어적 책략이 사회적 불안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Rotter(1966)의 내외통제 성격유형에 따르면, 외적 통제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로부터의 강화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패 후에는 불안을 보고하는 경향이 내적 통제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높다. 어떤 연구들은 내적 통제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 외적 통제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 후에 변명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Wang & Anderson, 1994).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는 223명(남=131명, 여=91명)의 학생이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나이는 평균 21.1세였다($SD=2.33$).

조사절차 연구자는 먼저 Lee 등(1995)의 자기제시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연구자는 한국판 척도의 각 문항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절차를 통하여 각 척도문항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충실히 가지도록 하였다(Brislin, 1980). 본 연구에서는 Lee 등(1995)의 연구에서 낮은 내적 일치도 때문에 제외되었던 후광노출척략에 관한 문항을 삽입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문화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조사는 정규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소개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응답에 대해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정보(학번, 성별, 및 나이)는 절대 비밀로 할 것입니다. 본 설문조사의 자료는 연구자만이 보관 및 검색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의 사항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학번, 성별, 나이를 응답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는 일련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시문을 상세히 읽으시고 각 질문에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여 주십시오.

연구자는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마쳤다고 판단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모두 마친 후, 조사 대상자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조사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조사도구 조사 질문지는 모두 8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쪽에는 지시문이 있었고 2쪽으로부터 5쪽까지는 13개의 자기제시책략을 서술하는 행동진술문이 모두 69개 있었다. 사과에 관한 진술문이 5개(예, “나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사과한다.”), 환심에 관한 것이 8개(예, “나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아침을 떤다.”), 후광노출에 관한 것이 6개(예, “나는 성공한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나머지 책략에 대해서는 자기 5개 행동진술문으로 되어 있다. 각 자기제시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행동진술문에 대해 그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정도를 9점 척도상에 평정하게 하였다. 평정은 1(매우 드물게)에서부터 9(매우 자주)까지였다. 나머지 5쪽부터 8쪽까지는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 관련 성격척도를 포함하여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자의식척도의 하위척도인 사회적 불안척도(Fenigstein 등, 1975), 자기검색척도(Snyder, 1974), 사회적 호감도척도(Crowne & Marlowe, 1964), 및 내외통제척도(Rotter, 1966)이었다.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하여 이들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결과와 논의

문항의 선정 각 문항과 해당 척락간의 상관은 .50에서 .87까지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p<.001$). 각 척락은 자기제시 척락척도의 총점과 .30에서 .83까지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p<.001$). 각 문항은 자기제시 척락척도의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13개 자기제시척락의 각각에 대해 내적 일치도 (Cronbach, 1951)를 계산하였다. 후광노출척락의 경우, 내적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1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68개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부록 참고).

내적 일치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을 분석한 자기제시 척락척도와 그 하위척도에 대한 평균치, 표준편차, 및 내적 일치도가 표1에 나타나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 수준은 .52에서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척락을 보면, 자기핸디캡(.52)과 후광노출척락(.53)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절하였다(Nunnally, 1978).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5로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자기제시가 일차원적 개념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기제시척락의 두 하위척락인 방어적 척락과 자기주장적 척락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척락들을 그림1의 분류에 따라 나누었다. 방어적 척락척도는 사과, 변명, 사전해명, 자기핸디캡, 및 정당화 척락에 대한 개인점수를 평균한 점수이다. 자기주장적 척락척도는 환심, 위협, 자기과시, 간청, 모범, 권리주장, 배척 및 후광노출척락에 대한 개인점수를 평균한 점수이다. 방어적 척도와 자기주장적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7과 .93으로 높게 나왔다.

다른 척도와의 관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제시 척락척도의 총점수는 자기검색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두 하위척도인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척도와의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정적 상관은 있지만 그 정도가 높지 않았다는 결과는 자기제시 척락척도가 자기검색척도와는 다른 심리적 기제를 측정함을

보인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자기제시 척락척도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인다. 자기제시 척

표 1. 자기제시 척락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Cronbach의 Alpha

척도	평균	SD	Alpha
1. 전체	4.48	.90	.95
2. 방어적 척락	4.85	.96	.87
변명	4.47	1.49	.83
정당화	4.85	1.47	.79
사전해명	4.80	1.25	.61
자기핸디캡	3.54	1.25	.52
사과	6.58	1.23	.73
3. 자기주장적 척락	4.10	.95	.93
환심	4.39	1.28	.80
위협	2.58	1.13	.73
간청	4.01	1.38	.67
권리주장	3.88	1.39	.80
자기과시	4.91	1.33	.69
모범	5.20	1.51	.84
후광노출	4.08	1.21	.53
배척	3.77	1.28	.69

주. 척도는 1점(매우 드물게)부터 9점(매우 자주).

표 2. 자기제시 척락척도와 다른 척도간의 상관

척도	SA(1)	SM(2)	SD(3)	LC(4)	$r_{1,23}$	$r_{4,23}$
1. 전체	.16*	.35*	-.29**	.07	.18**	-.05
2. 방어적 척락	.21*	.35**	-.28**	.07	.27**	-.04
변명	.15	.28**	-.26**	.06	.14*	-.03
정당화	.15	.36**	-.28**	.03	.16*	-.08
사전해명	.22**	.25**	-.30**	.09	.21**	-.02
자기핸디캡	.32**	.22**	-.27**	.13	.36**	.04
사과	-.09	.11	.15	-.06	.09	-.02
3. 자기주장적 척락	.10	.31**	-.28**	.07	.10	-.05
환심	.13	.44**	-.25**	.08	.15*	-.01
위협	.00	.04	-.17*	-.01	-.03	-.06
간청	.27	.19*	-.20*	.13	.27**	-.05
권리주장	.06	.21*	-.29**	.12	.04	.03
자기과시	.02	.23**	-.21*	.06	.03	-.01
모범	-.12	.20*	-.03	-.13	-.06	-.17*
후광노출	.13	.20*	-.28**	.13	.13	.07
배척	.08	.28**	-.20*	.01	.05	-.09

주. 척도는 1점(매우 드물게)부터 9점(매우 자주). SA= Social Anxiety Scale; SM=Self-Monitoring Scale; SD= Social Desirability Scale; LC=Locus of Control Scale. * $p<.05$; ** $p<.01$.

략척도는 사회적 호감도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총점과 사회적 호감도척도간의 부적인 상관은 본 연구의 예언과 일치하고, 자기를 제시하거나 검색하는 데에 관심을 보일수록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호감 받는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적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Snyder, 1974). 방어적 책략척도와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도 사회적 호감도척도와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예언과 같이 방어적 책략척도는 사회적 불안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21, p<.05$). 그 하위 책략으로는 사전해명과 자기헨디캡책략이 사회적 불안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주장적 책략척도의 경우, 간청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불안척도와 상관이 없었다. 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이 사회적 불안척도와 상이한 상관을 보인 결과는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책략이 서로 연관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독특한 구성개념임을 보여준다. 예언과는 달리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두 하위척도는 내외통제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13개 책략 모두 내외통제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변별 타당도를 심층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사회적 불안척도 및 내외통제척도간의 상관관계에서 자기검색과 사회적 호감의 요소를 부분상관으로 제거하였다. 자기검색척도와 사회적 호감척도는 자기제시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들 두 척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방어적 책략척도는 사회적 불안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방어적 책략의 하위척도에 있어서도 사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회적 불안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는 사회적 불안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고, 그 하위척도들의 경우도 환심과 간청책략을 제외하는 사회적 불안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 결과는 예언을 지지한다. 아울러 동결과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타당도를 입증하고 있으며, 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이 서로 관련은 있지만($r=.79, p<.001$)

서로 다른 독특한 구성개념임을 시사한다. 한편, 예언과는 달리 방어적 책략척도와 내외통제척도간의 상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 2

연구1의 결과는 자기제시 책략척도가 적절한 내적 일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다른 성격척도와의 상관은 자기제시 책략척도가 기존의 자기검색척도나 사회적 호감척도가 측정하는 구성개념과 부분적으로 공통성이 있지만,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2의 목적은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변별타당도를 보다 더 검증하고,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신뢰도와 자기제시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서의 성별차이, 및 자기제시의 하위차원을 검증하는 것이다.

임상심리학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다면적 성격검사에서 K척도는 검사의 타당도를 높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Butcher et al, 1989).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긍정적이거나 호의적인 특성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정서를 잘 통제하고 있으며 성격적으로 결함이 없음을 보이려고 한다. K척도에서 점수가 평균이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장해 보이려고 하고, 무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용하다는 특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생활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보이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성격검사의 결과를 해석할 때 K척도 점수를 고려하는 것은 성격검사의 타당도를 높여 준다. K척도가 측정하는 특성은 호의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는 성향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K척도간에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언하였다. 아울러 연구1에서 검증된 방어적 책략척도가 사회적 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가설을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2에서는 다면적 성격검사의 하위척도인 불안척도를 사용하였다. Lee 등(1995)의 연구와 현 연구1의 결과를 토대로 방어적 책략척도가 불안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언하였다.

Deaux(1977)는 남자는 자기주장적인데 비해 여자는 자기방어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자신이 능력이 있음을 보이려고 하고(Whitehead & Smith, 1986), 보다 직접적인 책략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Falbo & Peplau, 1980). 구체적인 자기제시 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고, 기존 연구는 서로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Berglas와 Jones(1978)는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핸디캡을 더 사용한다고 보고한 반면, Shepperd와 Arkin(1989)은 자기핸디캡을 사용함에 있어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기제시가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Tedeschi와 Lindskold(1976; Tedeschi & Melberg, 1984)에 의해 주장된 바와 같이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1에서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lpha=.95$). 이 결과는 자기제시가 일차원적인 개념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Roth 등(1988)은 호감적 자기제시가 이차원적인 구조(거부적 책략과 귀인적 책략)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Lee 등(1995)은 자기제시가 두 차원(방어적 및 자기주장적)으로 구성된 개념임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연구2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제시개념에 대한 이론적 구조가 단일차원인지 아니면 다차원인지를 검증하였다.

방 법

피험자 한양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74명(남=40명, 여=34명)과 서강대학교에서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118명(남=89명, 여=29명)이 연구2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는 모두 192명(남=129명, 여=63명)이었다. 두 집단의 나이는 평균 22.1세였다($SD=2.37$).

조사절차 설문조사의 절차는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연구1과 동일하였다. 첫째, 연구2에서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면적 인성검사(임상심리학회 편, 1994)에서 K척도와 불

안척도를 추출하였다. K척도는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안척도는 3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2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이 두 척도만이 포함되었다. 둘째,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2에 참가한 서강대학교의 남녀 학생들 가운데 61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와 논의

내적 일치도 자기제시 책략척도를 구성하는 13개의 책략에 대한 내적 일치도와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책략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 일치도는 연구1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기핸디캡과 후광노출책략은 다른 책략에 비해 낮은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표에서 보듯이 방어적 책략척도와 자기주장적 책략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각각 .86과 .91이었다. 전체 척도에 대한 내적 일치도는 .93이었다. 이 후자의 결과는 연구1의 결과와 같이 자기제시가 단일차원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뢰도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표 3.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Cronbach의 Alpha

척 도	평균	SD	Alpha
1. 전체	4.50	.83	.93
2. 방어적 책략	4.87	.93	.86
변명	4.77	1.46	.83
정당화	4.94	1.41	.77
사전해명	4.80	1.42	.71
자기핸디캡	3.29	1.15	.42
사과	6.55	1.20	.70
3. 자기주장적 책략	4.13	.88	.91
환심	4.55	1.15	.74
위협	2.39	1.21	.80
간청	4.12	1.28	.59
권리주장	3.93	1.34	.79
자기과시	4.96	1.32	.71
모범	5.07	1.46	.78
후광노출	3.93	1.30	.57
배척	4.07	1.20	.67

주. 척도는 1점(매우 드물게)부터 9점(매우 자주).

위하여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2에 참석한 서강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주 후에 동일한 서강대학교 61명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50명(남=38명, 여=1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총 점에 대한 검사-재검사의 신뢰도는 $r=.75, p<.001$ 이었다.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는 각각 .72와 .80 이었다($p<.001$). 구체적인 13개의 자기제시 책략척도에 대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변명, .57; 정당화, .56; 사전해명, .71; 자기헛디딤, .78; 사과, .81; 환심, .61; 위협, .71; 간청, .49; 권리주장, .69; 자기과시, .72; 모범, .78; 배척, .71; 후광노출, .84). 변명, 정당화, 간청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다소 낮았다. 전체적으로 신뢰도 조사 결과는 자기제시 책략척도가 사람들이 자기제시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척도와의 관계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언과는 달리 자기제시 책략척도는 K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두 하위척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K척도가 자기제시의 경향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제시와는 다른 심리적 기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일 K척도가 사람들이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제시 경향을 측정한다면 이 척도와 사회적 호감도척도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야 한다. 또한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K척도간의 상관에서 사회적 호감도의 요소를 제거한다면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K척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어야 한다. 연구2에서는 1차 설문지에 사회적 호감도척도가 포함되어있지 않았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속에 사회적 호감도 척도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최종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신뢰도 조사의 경우와 동일하였다(총 50명: 남=38명, 여=12명). 자기제시 책략척도, K척도, 및 사회적 호감척도 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상관분석결과는 K척도가 사회적 호감척도와 정적인 상관($r=.28,$

$p<.05$)이 있음을 보였다.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K척도간의 상관에서 사회적 호감을 통제하는 부분상관을 계산한 결과가 표4에 제시되어 있다. 예언과는 달리 자기제시 책략척도는 K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41, p<.01$). 이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찾아보기 위하여 두 하위척도와 K척도간의 상관을 보았다. 방어적 책략척도는 K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주장적 책략은 K척도와 상관이 없었다. K척도가 자기주장적 책략척도와 상관이 없다는 결과는 두 척도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자기제시동기를 일부 공유하고 있음을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호감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방어적 척도와 K척도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결과에 대한 가능한 해석을 찾을 만한 자료가 없다.

예언한 바와 같이 방어적 책략척도는 불안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고, 사과책략을 제외한 구체적인 하위책략척도들도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다. 자기주장적인 책략척도는 불안척도와 그 정도는 낮으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하위책략을 보면,

표 4.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다른 척도간의 상관

척도	K(1)	A(2)	SD(3)	r _{1,3}	r _{2,3}
1. 전체	-.25*	.26**	-.19	-.41**	.21
2. 방어적 책략	-.23*	.30**	-.18	-.47**	.32*
변명	-.23*	.25**	-.19	-.36**	.22
정당화	-.26*	.26**	-.17	-.51***	.33*
사전해명	-.15	.24**	-.09	-.33*	.31*
자기헛디딤	-.25*	.39**	-.15	-.22	.18
사과	.10	-.12	.02	-.17	.00
3. 자기주장적 책략	-.23*	.18*	-.15	-.25	.05
환심	-.17*	.16	-.23	-.33*	.36*
위협	-.13	.03	-.10	-.01	.03
간청	-.21*	.34**	-.35*	-.16	.20
권리주장	-.12	.10	-.08	-.11	-.05
자기과시	-.18*	.10	-.02	-.11	-.04
모범	-.07	-.07	.09	-.07	-.13
후광노출	-.19*	.17	-.08	-.33*	.07
배척	-.19*	.20*	-.14	-.24	.00

주. 척도는 1점(매우 드물게)부터 9점(매우 자주). K=K Scale; A=Anxiety Scale; SD=Social Desirability Scale.
* $p<.05$; ** $p<.01$; *** $p<.001$.

간청과 배척책략만이 불안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타당도를 보다 검증하기 위하여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불안척도간의 상관에서 사회적 호감도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상관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4에서 보듯이 방어적 책략은 불안척도와 상관이 없었다. 이 결과는 Lee 등(1995)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변별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추가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이 상관은 있지만($r=.67, p<.05$), 서로 다른 구성개념임을 시사해 준다.

성별차이 자기제시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에 있어 성별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1의 자료(집단1, $n=223$)와 연구2의 자료(집단2, $n=192$)를 집단변인으로 함께 분석하였다. 먼저 자기제시 책략척도에 대한 응답을 2(집단1 대 집단2)×2(성별: 남대 여) 다원변량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하였다. 다원변량분석결과에 따르면, 집단변인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 성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Wilks's Lambada = .85, $F(13, 385)=5.15, p<.0001$. 성별로 자기제시 책략척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가 표5에 나타나 있다. 일원후속검증(univariate follow-up tests)결과를 보면, 여자들에 비해 남자들이 환심, 위협, 권리주장, 모범, 및 배척책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은 남자들에 비해 자기핸디캡책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명, 정당화, 사전해명, 사과, 간청, 및 후광노출책략 등에 대해서는 성별간에 차이가 없었다. 집단과 성별변인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F<1$).

일반적으로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기 위하여 이들 두 책략점수를 2(집단)×2(성별) 다원변량분석하였다. 집단변인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 성별변인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Wilks's Lambada = .97, $F(2, 396)=5.48, p<.005$. 일원후속검증은 방어적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에서는 성별차이가 없음을 보여주었다($F<1$). 그러

표 5. 성별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연구1과 2의 통합자료)

척도	남자		여자		F(1, 397)
	평균	SD	평균	SD	
1. 전체	4.53	.85	4.41	.89	.20
2. 방어적 책략	4.87	.94	4.84	.94	.06
변명	4.70	1.47	4.46	1.48	2.18
정당화	4.89	1.39	4.89	1.53	.01
사전해명	4.85	1.33	4.73	1.33	.82
자기핸디캡	3.28	1.21	3.66	1.17	8.64**
사과	6.62	1.17	6.48	1.28	1.74
3. 자기주장적 책략	4.20	.88	3.97	.96	5.94*
환심	4.59	1.21	4.26	1.23	6.54**
위협	2.60	1.19	2.31	1.12	5.59*
간청	4.09	1.26	4.01	1.46	.25
권리주장	4.02	1.32	3.70	1.41	4.93*
자기과시	4.95	1.29	4.92	1.39	.04
모범	5.30	1.47	4.86	1.48	8.83**
후광노출	4.05	1.20	4.11	1.12	.16
배척	3.99	1.26	3.60	1.32	8.66**

주. 척도는 1점(매우 드물게)부터 9점(매우 자주).

* $p<.05$; ** $p<.01$.

나 자기주장적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에서는 성별차이가 있었다. 남자($M=4.20, SD=.88$)는 여자($M=3.97, SD=.96$)보다 자기주장적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F(1, 397)=5.71, p<.02$. 집단×성별변인간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성별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이 서로 다른 구조임을 시사한다.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차원 어떤 자기제시이론은 자기제시 행위를 하게되는 동기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것으로 가정한다(예, Arkin, 1980). 만일 사회적 승인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라면, 자기제시 책략은 일차원 구조를 가져야 한다. 연구1과 2에서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전체문항이 높은 내적 일치도를 보인 것은 자기제시차원이 일차원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방어적 책략척도가 사회적 불안과 정적인 상관이 있으나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는 결과와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책략의 이용에 있어서 성별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자기제시가 일차원이라는 가정과 불일

치한다. Tedeschi와 Lindskold(1976)는 자기제시가 이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에는 다른 심리적 기제가 작용한다.

이들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표집은 연구1과 연구2의 표집을 합친 것이다. 분석시 표6에 제시된 13개 자기제시 책략간의 상관도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PC용 8판(Jöreskog & Sörbom, 1993)을 사용하였다. 계산방법은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일요인모델 가설은 한 개의 요인이 13개 책략간의 공변량을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요인모델 가설은 두 개의 요인이 13개 책략간의 공변량을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두 모델의 부합도 검증은 여러 가지 기준치를 가지고 평가하였다(Bollen, 1989). 먼저, 전통적인 χ^2 의 부합치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χ^2 값은 해당 모델이 얻어진 자료와 잘 부합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χ^2/df 비를 사용하였다. 이 비율치가 2.0보다 작으면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GFI(goodness of fit index, Jöreskog & Sörbom, 1993),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NFI(normed fit index, Bentler & Bonett, 1980)를 사용하였다. 이들 세 기준치의 값이 .90보다 크면 해당 모델의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준치 가운데 χ^2 와

GFI는 표집의 크기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비해, CFI와 NFI는 표집의 크기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다(Bollen, 1989).

두 가설을 검증한 결과가 표7에 제시되어 있다. 표7에서 보듯이 단일요인가설의 $\chi^2(65)$ 는 385.67, $p<.001$ 이었다. 이 가설에 대한 χ^2/df 비는 2.0보다 크고, GFI, CFI, NFI값은 부합도가 좋은 것으로 보는 기준치인 .90보다 작게 나와 단일요인모델의 부합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계수는 사과책략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각 책략은 한 개의 자기제시요인에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단일요인 모델의 경쟁모델인 이 요인모델을 검증한 결과가 표7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경쟁모델인 이요인모델의 $\chi^2(64)$ 는 310.37, $p<.001$ 이었다. 이 가설에 대한 χ^2/df 비는 2.0보다 컸으나, GFI, CFI, NFI값은 전체적으로 기준치에 이르는 부합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어적 책략은 모두 요인1에 부하되었고 자기주장적 책략은 모두 요인2에 부하되었다. 이들 두 요인은 유의미한 상관($r=.87$)을 보였고 변량의 76%를 공유하였다.

모델2의 부합도가 모델1의 부합도보다 통계적으로 우세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χ^2 차이를 검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Bentler & Bonett, 1980; Breckler, 1990). 두 모델의 χ^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1)=76.30$, $p<.001$. 이

표 6. 자기제시 책략간의 상관행렬표(연구1과 2의 통합자료)

척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변명	1.00												
2.정당화	.74	1.00											
3.사전해명	.64	.64	1.00										
4.자아핸디캡	.34	.34	.37	1.00									
5.사과	.08	.16	.23	-.01	1.00								
6.환심	.61	.58	.56	.34	.15	1.00							
7.위협	.20	.26	.16	.26	-.13	.24	1.00						
8.간청	.56	.54	.52	.38	.11	.55	.21	1.00					
9.권리주장	.58	.59	.44	.31	.01	.57	.40	.49	1.00				
10.자아과시	.55	.59	.45	.29	.18	.52	.26	.45	.75	1.00			
11.모범	.26	.37	.31	.20	.23	.40	.19	.16	.36	.40	1.00		
12.배척	.59	.55	.45	.32	.09	.47	.35	.45	.56	.50	.28	1.00	
13.후광노출	.48	.53	.44	.36	.09	.51	.32	.46	.62	.59	.33	.51	1.00

표 7. 요인부하량 및 부합합치도(연구1과 2의 통합자료)

측정치	모델 1	모델 2	
		요인 1	요인 2
요인부하량			
변명	.81	.85	-
정당화	.82	.86	-
사전해명	.70	.74	-
자기핸디캡	.45	.43	-
사과	.16	.16	-
환심	.74	-	.73
위협	.36	-	.39
간청	.67	-	.65
권리주장	.78	-	.83
자기과시	.75	-	.79
모범	.44	-	.45
후광노출	.69	-	.72
배척	.69	-	.69
부합도 지표			
χ^2	385.67***	310.37***	
df	65	64	
GFI	.86	.89	
CFI	.87	.90	
NFI	.85	.90	

주.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

*** $p < .001$.

결과는 이 요인모델이 단일요인모델보다 13개 책략간의 공변량을 보다 잘 설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델과 측정된 자료간의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GFI, CFI, NFI 값도 이요인모델이 단일요인모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방어적 책략과 자기주장적 책략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구성개념임을 시사해 준다.

종합논의

연구1과 2에서는 Lee 등(1995)이 개발한 자기제시 책략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이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및 기본차원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1과 2의 결과는 자기제시 책략척도가 신뢰성이 있으며 타당성이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3개의 자기제시 책략의 내적 일치도는 연구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조사 결과는 자기제시 책략척도가 2주간의 시간적인 차이에도 신뢰로움을 보였다.

자기제시 책략척도가 높은 타당도를 가진 척도임을 보여주는 결과가 연구1과 2에서 부분적이지만 일관성이 있게 얻어졌다. 타당도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다른 척도들간의 상관분석으로 검증되었다. 연구1에서 방어적 책략척도는 사회적 불안척도와 일관성이 있게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는 사회적 불안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이 결과는 부분상관분석으로 사회적 호감을 통제한 경우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방어적 책략척도가 한국형 다면적 인성검사의 하위척도인 불안척도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인데 반해, 자기방어적 책략척도는 불안척도와 상관이 없음을 보였다. 이 결과는 Lee 등의 연구(1995)에서 보고된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변별타당도에 대한 증거를 보다 확증하는 것이다. 연구2에서 K척도는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분상관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호감요소를 통제한 경우, 방어적 책략척도는 K척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는 K척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부분상관분석 결과는 K척도가 측정하는 사람들의 성격특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적이기 보다는 주장적으로 드러냄으로서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동기와 관련이 있음을 보인다. 사회적 호감도척도와 K척도간에 정적 상관이 있고, 사회적 호감도를 통제하였을 때, 자기주장적 책략과 K척도간의 상관이 없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호감요소를 통제한 경우, 방어적 책략과 K척도간의 부적 상관은 유의미하였다. 현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없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적었다(총 50명). 이 자료를 근거로 얻어진 결론은 제1중요차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차후 이 관계가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K척도는 다면적 인성검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K척도가 측정하는 자기제시의 성향을 체계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인성검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K척도가 응답자의 어떠한 특성을 측정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한편, 연구1과 2에서 자기핸디캡책략이 불안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는 Strube(198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사회적 불안이 방어적 책략과 상관이 있다는 주장과도 일치한다(Schlenker & Leary, 1982, 1985).

본 연구결과의 중요성은 이론적으로 제안된 자기제시 책략의 이차원적 구조가 범문화적으로 타당하다는 증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있다. 다음의 세가지 결과들이 자기제시 책략의 이원구조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책략척도가 다른 성격척도들과 보인 상이한 상관결과이다: 방어적 책략척도는 사회적 불안척도와 일관성있게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주장적 책략척도는 불안척도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다음은 구체적인 자기제시책략을 사용함에 있어 두드러진 성별차이이다. 자아핸디캡을 제외한 방어적 책략의 사용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나, 자기제시적 책략의 경우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자주 사용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Lee 등(1995)의 것과 일치하고, 남자는 자기주장적이고 여자는 방어적이라는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Deaux, 1977). 마지막으로, 자기제시 책략의 이원구조를 시사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이다.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자기제시 책략이 이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모델을 지지하였다. 이요인모델의 부합도에 대한 χ^2 분석결과는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요인모델이 절대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χ^2 분석은 표집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모델의 부합도를 나타내는 GFI, CFI, NFI 등 다른 지표들은 이요인모델이 단일요인모델보다 얻어진 자료와 잘 합치됨을 보였다. 또한, 두 경쟁모델에 대한 전체 χ^2 분석결과도 이요인 모델을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얻어졌다.

본 연구에서 흥미있는 결과는 구체적인 책략을 사용하는 데 있어 두드러진 성별차이이다. 방어적 책략의 경우, 현 연구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자기핸디캡책

략을 더 사용하였다. 이 결과는 남자가 더 자기핸디캡을 사용한다는 결과(Berglas & Jones, 1978)나 성별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Shepperd & Arkin, 1989)와 불일치한다. Lee 등(1995)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합리화와 사과책략을 더 사용하였다. 자기제시 책략의 경우, 현 연구에서는 자기과시와 후광노출책략의 사용에 있어 성별차이가 없었으나, Lee 등의 연구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간청책략의 경우, 두 연구에서 모두 성별차이가 없었다. 모범책략의 경우, Lee 등의 연구에서 성별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현 연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모범책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현 연구자는 자기제시책략의 사용경향을 한국과 미국간에 비교할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성별차이가 문화적 차이라고 설명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앞으로 문화 비교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자기제시 책략을 사용하는 경향의 성별차이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탐구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제시 이론가들은 자기제시를 통해 추구되는 자기정체성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정체성에 제한시키고 있다(예, Roth 등, 1988; Schlenker, 1980). 이는 자기제시의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Lee 등(1995)은 사람들이 여러 자기제시책략을 이용하여 긍정적 정체성과 부정적 정체성을 포괄하는 정체성을 추구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긍정적-부정적 정체성 이외의 가능한 정체성 구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체성에 다른 중요한 심리적 차원이 존재하는가? 사회적 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79)은 자기개념의 두 가지 측면을 가정하고 있다. 하나는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자기(social self)이다. 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기는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두 자기를 포괄하고 있다. 자기제시 경향을 문화비교의 관점에서 다루려면, 먼저 정체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자기제시를 통해 유지 관리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유형이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인관계에서 행위자가 추구하는 자기정체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자기와 사회적 자기 가운데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한가? 사회적 자기는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는 인종, 성, 직업 등과 같은 속성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속성간 차이가 모두 통제되었을 때를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어떤 문화적 특성이 대인관계에서 개인이 자기제시를 통해 취하려는 두 자기(즉, 개인적 및 사회적 자기)의 상대적 선호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최근 자주 연구되고 있는 문화적인 변인으로서 개인주의-집합주의의 차원에서 보면, 개인주의적 문화권에서는 행위자들이 개인적 자기를 제시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집합주의 문화권에서는 행위자들이 사회적 자기를 제시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이는 후광노출과 배척책략의 경우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행위자는 성공한 다른 사람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거나(후광노출책략) 실패한 다른 사람과의 관련성을 떼어냄으로서(배척책략) 자기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정체성을 성취하려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집합주의 문화권에서 행위자는 개인이 아닌 다양한 집단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자기정체성을 성취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집단 또는 개인의 성공과 실패는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자기제시책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기제시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자기제시 경향을 토대로 사회심리학에서 발견된 주요 실험결과들을 재해석을 하고 있다(예, Baumeister, 1982; Tedeschi, 1981). 이러한 재해석과정의 하나로 본 연구자는 자기제시 경향을 개인차 변인으로 하여 기존의 사회심리학에서 발견된 주요결과를 반복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 예로, 자기제시 경향이 개인차 변인으로서 자기본위적 편향(self-serving bias, Bradley, 1978)을 조정하는 역할(moderator)을 하는 지를 검증할 수 있다. Arkin, Appleman과 Burger(1980)의 연구에서 낮은 불안만을 가진 사람은 자기본위적 편향귀인을 하는 데 비해, 높은 불안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적에 대해 다른 사람의 평가가 기대

될 때, 성공에 대해서는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감소되고 실패에 대해서는 더 큰 책임을 느꼈다. 이 결과에 대해 높은 불안을 가진 사람은 겸손을 방어적 책략으로 사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이 옳다면, 방어적 책략척도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성공에 대한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적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본위적 편향현상에 대한 재해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제시 책략척도의 예언타당도를 보여주는 증거를 주는 것이다. 현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사용되는 자기제시책략을 모두 다루지 못하였다. 한 예로 한국인의 대표적인 성격적 특징인 겸손과 수줍음을 자기제시 책략의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책략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 자기제시 책략의 기본차원을 반복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체 자기제시 책략척도와 두 하위척도인 방어적 및 자기주장적 척도의 예언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임상심리학회 편(1994). 다면적 인성검사(MMPI). 서울: 한국가이던스.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kin, R. M.(1980). Self-presentation. In D. M. Wegner & R. R. Vallacher(Eds.),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pp.158-18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rkin, R. M., Appleman, A. J., & Burger, J. M.(1980). Social anxiety, self-presentation, and self-serving bias in causal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3-35.
- Baumeister, R. F.(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91*, 3-26.

-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erglas, S., & Jones, E. E.(1978). Drug choice as a self-handicapping strategy in response to non-contingent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05-417.
- Bollen, K. A.(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 303-316.
- Bradley, G.(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 reexamination of the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6-71.
- Breckler, S. J.(1990). Overall fit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Two types of sample size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56-259.
- Briggs, S. R., Cheek, J. M., & Buss, A. H.(1980). An analysis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79-686.
- Brislin, R. W.(1980). Translation and content analysis of oral and written materials. In H. Triandis and H. Berry(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Vol.2, pp.389-444). Allyn and Bacon.
- Butcher, J. N., Dahlstrom, W. G., Graham, J. R., Tellegen, A., & Kaemmer, B.(1989).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MMPI-2(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rver, C. S., & Scheier, M. F.(1985). Aspects of the self and the control of behavior. In B. R. Schlenker(Ed.), *The self and social life*(pp.146-174). New York: McGraw-Hill.
- Cialdini, R. B., & Richardson, K. D.(1980). Two indirect tactics of image management: Basking and bl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06-415.
- Cook, T. D., & Campbell, D. T.(1979). *Quasi-experimentation: Design & analysis issues for field settings*. NJ: Houghton Mifflin.
- Cronbach, L. J.(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297-334.
- Crowne, D. P., & Marlowe, D. A.(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Wiley.
- Deaux, K.(1977). Sex differences. In T. Blass(Ed.), *Personality variables in social behavior*(pp. 357-377). Hillsdale, NJ: Erlbaum.
- Edward, A. L., & Walsh, J. A.(1964). Response sets in standard and experimental personality scal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 52-61.
- Falbo, T., & Peplau, L. A.(1980). Power strategies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18-628.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offman, E.(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Anchor.
- Hofstede, S.(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Jellison, J. M., & Gentry, K. W.(1978). A self-presentation interpretation of the seeking of social approv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Bulletin*, 4, 227-230.
- Jones, E. E., & Pittman, T. S.(1982). Toward a general theory of strategic self-presentation. In J. Suls(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self* (Vol. 1, pp.231-262). Hillsdale, NJ: Erlbaum.
- Jöreskog, K., & Sörbom, D.(1993). *LISREL VIII: Moo-*

- resville, IN: Scientific Software, Inc.
- Lee, Su-Jae, Quigley, B. M., Nesler, M. S., Tedeschi, J. T.(1995). *Development of a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Lennox, R. D., & Wolfe, R. N.(1984). Revision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349-1364.
- Meleshko, K. G. A., & Alden, L. E.(1993). Anxiety and self-disclosure: Toward a motivation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1000-1009.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McGraw-Hill.
- Paulhus, D. L.(1984). Two-component models of social desirabl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46*, 598-609.
- Powers, T. A., & Zuroff, D. C.(1988). Interpersonal consequences of overt self-criticism: A comparison with neutral and self-enhancing presentations of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54-1062.
- Rhee, E., Uleman, J. S., Lee, H. K., & Roman R. J. (1995). Spontaneous self-descriptions and ethnic identities in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istic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42-152.
- Roth, D. L., Harris, R. N., & Snyder, C. R.(1988).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attributive and repudiative tactics of favorable self-presentat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6*, 159-170.
- Roth, D., Snyder, C. R., & Pace, L. M.(1986). Dimensions of favorable self-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867-874.
- Rotter, J. B.(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s. external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80*(1, whole no. 609).
- Scheier, M. F.(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4-521.
- Schlenker, B. R.(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Schlenker, B. R., & Leary, M. R.(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chlenker, B. R., & Leary, M. R.(1985). Social anxiety and communic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4*, 171-192.
- Shepperd, J. A., & Arkin, R. M.(1989a). Determinants of self-handicapping: Task importance and the effects of preexisting handicaps on self-generated handica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5*, 101-112.
- Snyder, M.(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26-537.
- Strube, M. J.(1985). An analysis of the self-handicapping scale.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7*, 211-224.
- Tajfel H., & Turner, J. C.(1979).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pp.7-24). Chicago: Nelson-Hall.
- Tedeschi, J. T.(Ed.)(1981).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theory*.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Tedeschi, J. T., & Lindskold, S.(1976). *Social psychology: Interdependence, interaction, and influence*. New York: Wiley.

- Tedeschi, J. T., & Melburg, V.(1984). Impression management and influence in the organization.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 3, 31-58.
- Trian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Wang D., & Anderson, N. H.(1994). Excuse-making and blaming as a function of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295-302.
- Whitehead,, G. I., III, & Smith, S. H.(1986). Competence and excuse-making as self-presentational strategies. In R. F. Baumeister(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pp.161-177). New York: Springer-Verlag.
- Wiggins, J. S.(1964). Convergences among stylistic response measures from objective personality tes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4, 551-562.

부 록

자기제시 척략척도

다음에 주어진 각 행동 서술문을 읽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래의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래의 행동을 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하십시오.

매우 드물게 1 2 3 4 5 6 7 8 9 매우 자주

변 명

- 43.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해명을 한다.
- 53. 나는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
- 40. 나는 일이 잘못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실패에 책임이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 67. 나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원래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 39. 나는 잘못된 일에 대해 나의 책임이 없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고 한다.

정당화

- 48.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나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자 공감이 가는 이유를 낸다.
- 19. 나는 소극적인 행동을 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나의 입장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임을 이해시키려 한다.
- 66.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나쁘게 보더라도 내 행동에 대해 그럴듯한 이유를 낸다.
- 5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면 내 행동이 정당하였음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 6.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발을 줄이려고 내 행동을 정당화한다.

사전해명

- 4.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그 일을 설명한다.
- 2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승인을 얻는다.
- 11. 나는 어떤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사전에 변명을 늘어놓는다.
- 28.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일이면 미리 그 일을 정당화시켜 놓는다.
- 54. 나는 어려운 시험을 보기 전에 결과가 잘 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변명을 한다.

자기핸디캡

- 63. 나는 불안 때문에 내 일을 느르친다.
- 58. 나는 학과 이외의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시험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
- 62. 나는 일의 성사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고의로 만들어 둔다.
- 14. 나는 어떤 일을 잘해야 한다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때 병이 난다.
- 46. 나는 그 동안 건강 때문에 학교 성적이 보통이었다.

사 과

15. 나는 잘못을 범하였을 때 사과한다.
32. 나는 내 잘못이 분명할 때 그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인다.
55. 나는 잘못된 일이 있을 때 후회와 죄책감을 표현한다.
21.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과 화해하려고 한다.
3. 만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가하였다면, 나는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환 심

57. 나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좋은 인상을 보이려고 한다.
4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점을 말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아첨을 떤다.
68.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도록 그들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다.
10.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편들도록 그들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3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의견만 제시한다.
3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도록 그들을 친절히 대한다.
47.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그들도 나를 도울 것이기에 돕는다.

위 협

56.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끔 행동한다.
64.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자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게끔 만든다.
 2. 나는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나의 체격이나 힘을 사용한다.
36.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을 위협한다.

간 청

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한다.
5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나보다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16.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고자 나 혼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들이 여기게 한다.
3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집단 과제에 대한 책임을 떠 맡아 주기를 바란다.
 8. 나는 상대방의 동정심을 얻기 위하여 나의 약점을 이용한다.

권리주장

60. 나는 내가 기여하지 않은 일에 대해 나의 몫을 주장한다.
44. 나는 내가 잘한 일을 남들이 알고 있지 못하면, 그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 준다.
26. 나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51. 나는 여럿이 과제를 함께 수행할 때 나의 기여가 실제 보다 큰 것처럼 보이게 한다.
25. 나는 누군가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할 때, 잘한 일에 대해 실제보다 더 나의 몫을 주장한다.

자기과시

- 65. 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 34. 나는 내가 성취한 일의 가치를 과장한다.
- 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한 일을 잘 해냈을 때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다.
- 22. 나는 내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들의 가치도 함께 말한다.
- 45. 나는 내가 준 선물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실을 바로 잡아 준다.

모 범

- 27. 나는 다른 사람들이 추종할 수 있는 본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 17. 나는 사람이 처신해야 할 바에 대해 귀감이 되려고 한다.
-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한 것과 똑같이 따라 행동하도록 하게 한다.
- 41.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한다.
- 24. 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 받도록 유도한다.

후광노출

- 5. 나는 내가 본 유명한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 13. 나는 유명 인물, 명성 있는 기관이나 집단과 연상되어지는 옷이나 배지를 착용한다.
- 18. 나는 내가 대학생이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 49. 나는 성공한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인다.
- 3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팀이 경기에서 이기면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배 척

- 61. 나는 나와 적대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한다.
- 30. 나는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하한다.
- 38. 나는 평판이 좋지 못한 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한다.
- 23. 나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한다.
- 52. 나는 경쟁자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한다.

Cross-Cultural Evidence for Validity of a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Suk-Jae Lee

Hanyang University

A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developed by Lee et al.(1995),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clivity for using 13 self-presentation tactics, was translated into Korean. Two studies were carried out to examin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translated version of the scale. Evidence for discriminant and construct validity is presented. The results indicate that (a)the translated version is highly reliable and valid as the original English version, (b)self-presentation tactics consist of two components: defensive and assertive tactics, and (c)males are more likely than females to use assertive self-presentation tactics. The potential utility of the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for future research on both the impacts of cultural factors such as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self-presentation behavior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is discussed.